



가족이 짝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Family relief and self-support : Joint weddings and their protagonists

저자
(Authors) 김아람
Kim A Ram

출처
(Source) [역사문제연구](#) , (33), 2015.4, 53-95 (43 pages)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 (33), 2015.4, 53-95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89786>

APA Style 김아람 (2015). 가족이 짝어진 구호와 자활. [역사문제연구](#) , (33), 53-9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8/09/03 10: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특집

‘정상성’에의 강박

—한국 근현대 가족의 역사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김아람*

1. 머리말
2. 합동결혼식 보여주기의 정치
3. 합동결혼 추진과 사회의 ‘정상화’ 시도
 - 1) 상이군인 원호와 결혼
 - 2) 개척단·재건대와 성매매 여성의 교화와 개혁
4. 끝나지 않은 정착과 자활의 과제
5. 맺음말

1. 머리말

분단과 전쟁을 지나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재편되었다. 남북한과 국외에서의 피난과 이산, 사망과 이별, 가출 또는 이농으로 나타난 가족 구성원의 상실과 가족 해체는 가족사의 맥락에서 그 자체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거나 사회가 변동하는 데에 중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대표논저: 『5·16군정기 사회정책—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82, 2011;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구』 29, 2013;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인식과 해외 입양』, 『고아, 족보 없는 자—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4.

요한 계기이자 결과가 되었다. 1950~60년대에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1962년에 대전 시민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다고 생각하는 결혼 방식은 약 54%가 ‘본인의 자유’였고, 약 23%가 ‘부모와 논의한다는 것’이었다.¹ 1950년대의 현실에서 결혼 방식은 배우자를 부모가 전적으로 결정했거나, 부모가 선택한 후 본인의 의사를 물었던 것이 대다수였지만, 지향하는 결혼 방식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결혼 인식의 변화를 거스르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바로 합동결혼의 주인공이었던 ‘상이군경’, ‘개척단’ 및 ‘재건대’가 된 사람들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군인과 경찰, 갯벌을 간척하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에 고아나 ‘부랑아’를 동원하여 조직한 개척단과 재건대는 합동결혼의 신랑들이었다. 상이군경, 개척단·재건대 남성과 여성들의 합동결혼은 1950~60년대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정책이었고 수천 명이 그 주인공이 되었다.³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전쟁으로 팔다리가 없거나 실명한 남성들이 부부가 되도록 하여 원호사업의 일부를 해결하였고, 거리의 ‘문제아’와 예비적 범죄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조직하여 교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방안으로써

1 金崎洙, 『婚姻에 대한 法意識의 實證的 考察』, 『法學』 4-1·2, 1962, 100~123쪽.

2 李效再, 『서울市家族의 社會學的 考察』, 『韓國文化研究院論叢』 1, 1959. 3, 9~71쪽.

자신의 결혼 당시 배우자 선택방법에 대해 부모가 전적으로 결정: 287명 중 178명, 부모가 선택해서 본인의 의사를 물었다: 75명, 자신이 정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 18명, 자신이 정하고 부모의 충고를 들었다: 5명, 자신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8명.

3 1956년 보건사회부 자료에서는 상이군경 합동결혼자 수를 1,880쌍으로 추산하였다. 保健社會部, 『國政監査資料』, 1956, 72쪽.

결혼을 주목하였다.

합동결혼은 정상이라고 여길 만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형성을 통해서 부상자와 부랑자를 정상적인 주체로 안정시키고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적 요구의 반영이었다. 상이군경과 고아 및 부랑아는 전쟁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었다. 부상당한 채 돌아온 군경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고 전쟁 자체가 분단된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전쟁의 효과와 의미를 지키는 것이었다.⁴ 전쟁이 남기고 간 고아나 부랑아는 국가의 전후 재건을 위한 상징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가족이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국가가 합동결혼을 추진하고 그것을 정치로 활용하는 맥락은 1950~60년대에 전쟁과 전후의 과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 가족은 그 핵심적인 단위이자 동력이었다.

전쟁기와 그 이후까지인 1950년대에는 상이군경의 합동결혼이 주가 되었고, 1960년대에는 개척단과 재건대로 그 주인공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합동결혼 당사자의 변화는 단순히 그 대상의 시기적 차이가 아니었다. 1950년대 전후 수습과 원호사업 중심의 사회정책과 제도가 1960년대 개간과 간척이라는 개발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부상 군인, 고아나 부랑아가 가족 형성이라는 계기를 통해 노동과 생산의 주체이자 ‘정상인’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했던 사회적 요구이기도 했다. 합동결혼을 하는 주체는 개인에서 가족이 되는 변화를 겪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억압되면서 그와 동시에 스스로 어

4 조지 L. 모스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국가가 전사자를 기념하고 신화화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내셔널리즘의 작동에 대해 규명하여 국가의 상이군인 활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George L. Mosse, *Fallen Soldiers :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 1990(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문학동네, 2015).

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속되는 선택에 직면하였다. 합동결혼의 과정과 그 주
인공의 삶에는 1950~60년대에 가장 취약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었던 사람
들의 인식과 경험이 담겨 있다. 이 글은 합동결혼이라는 제도와 그것이 구체
화되는 실상을 통해 1950~60년대에 가족 형성을 매개로 추구되었던 ‘정상’
의 인간과 사회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1950~60년대의 합동결혼만을 다룬 연구는 없으나 그 주체들에 대한 근
래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인식,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
다. 연구 성과는 상이군인, 고아 및 부랑아와 개척단,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것
으로 구분된다. 상이군인 연구는 지역 사례를 통하여 상이군인과 유가족이
전쟁으로 겪은 폭력과 고통, 한국전쟁의 기억 및 원호대상으로써의 상이군
인의 범주와 규정, ‘반공’국민과 재건의 일꾼이라는 국민만들기에 대해 이루
어졌다. 상이군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복원되어 그간의 삶과 생각들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상이군인의 아내들을 구술하여 그 경험을 복원한 연구는 당시
상이군인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가정생활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⁵

고아와 부랑아 및 개척단에 대해서는 5·16군정기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다룬 연구에서 합동결혼과 그 가족이 개척단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결혼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고 분석하였다.⁶ 또
닝마주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1950년대에는 부랑아, 1960년대에는 근로재
건대, 1980년대에는 자활근로대, 1990년대부터의 포이동 주민들로 불린 사

5 차례대로 정리하자면 박정석, 「상이군인 및 유가족들의 한국전쟁 경험」, 『호남문화연구』 30, 2002; 이임하, 「상이군인들의 한국전쟁 기억」, 『사림』 27, 2007;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 기」, 『중앙사론』 33, 2011; 국사편찬위원회, 『전쟁의 상처와 치유—전쟁 미망인과 상이군인의 전후 경험』, 2015;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6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129, 2011.

람들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한 비정상성을 지적한 연구도 나왔다.⁷ 성매매 정책과 여성의 체험에 대해 다룬 연구들에서는 부녀보호소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며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회유했다고 밝혔고, 실제 여성의 경험도 들려주고 있다.⁸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합동결혼의 대상 / 주체였던 자들의 삶, 합동결혼의 억압성이 일정 부분 규명되었으나 해방 후 합동결혼의 역사적 맥락과 1950~60년대에 국가와 민간단체의 합동결혼 정책과 대상, 추진 내용, 합동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특히 상이군인과 개척단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던 정착과 자활의 문제는 본 논문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될 주제이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자료들은 다양하다. 정부와 국회, 관변단체에서 발간한 자료, 신문과 잡지 등 문헌자료와 더불어 영상 및 사진을 적극 활용하였다. 합동결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치르는 것과 결혼식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대한뉴스』의 보도와 신문 및 국정홍보처에서 남긴 사진들로 결혼식을 함께 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합동결혼을 했던 과거 개척단원 남성의 구술을 통해 결혼 그 후의 삶에 대해 조명해보고 한다.

7 박흥근,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넝마주이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 석사논문, 2014.

8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 박사논문, 2011; 원미혜, 『‘성 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0.

2. 합동결혼식 보여주는 정치



〈사진1〉 1953년 상이군인 합동결혼식(출전: 『경향신문』, 1953년으로만 기록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1952년 5월 17일, 전시수도 부산에 있는 동아극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내는 군악대·여학생·일반내빈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군악대의 웨딩마치가 ‘장엄하게’ 시작되자 6쌍의 신랑신부가 입장한다. 무대는 꽃다발과 테이프 장식으로 화려하다. 오른쪽으로는 ‘천사같이 차린’ 신부

가 여자군인의 에스코트를 받아 식당으로 향하고, 왼쪽으로는 의족을 한 신부와 실명한 신랑이 각각 부축을 받고 무대로 향한다. 이날 결혼식 주인공은 바로 한국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이군인’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 동료 군인의 부축을 받는 실명한 상이군인은 ‘안타깝게도’ 신부의 단장을 보지 못하여 속상한데다가 여섯 신부 중 어느 신부가 자기부인인지 찾지 못한다. 다리가 없어진 신랑은 ‘신부의 부축을 한평생 받게 되는 기쁨에 잠긴 것인지’ 어깨가 들쭉인다. 스포트라이트는 이들 신랑신부를 향하여 빙빙 돌고 있다. 이 대생의 축하와 합창,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다.⁹

몇 개월 후 초가을에는 부산극장에서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식장은 태극기와 만국기로 장식되었고, 화환과 선물이 산과 같이 쌓여있다. 관공서 직원

9 『경향신문』 1952. 5. 19.

과 일반 하객들로 식장은 초만원이다. 신원일 국방부 장관이 주례를 한 뒤 숙명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축사와 합창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소프라노 김천애의 축하도 더해졌다. 신랑 중 3명은 실명하였고, 3명은 왼쪽 어깨가 절단되었다. 양쪽 다리가 절단된 자는 경찰관 출신이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도 상이군인과 경찰이다.¹⁰



〈사진2〉 상이군인 5쌍이 결혼식 후 남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뒤편에 이승만 동상이 보인다(출전 : 『대한뉴스』 제190호, 1958. 11. 24)

정전협정 후에도 상이군경의 합동결혼식은 계속되었다. 1953년 10월 31일의 결혼식이 여덟 번째였다. 환도와 같이 결혼식장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졌다. 식장이 된 시공관은 조명과 오색테이프, 국화꽃다발로 그 무대가 꾸며졌다. 〈사진1〉과 같이 신랑신부는 24쌍의 신랑신부가 조명등과 오색테이프, 국화꽃다발이 놓인 무대 위에 나란히 서 있다. 손원일 국방부 장관은 “새 가정이 끈기와 용기로써 한평생 평화롭고도 행복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다”는 내용의 주례사를 하였고,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 박술을 사회부 장관, 상이군인회장이 축사를 하였다.¹¹ 식이 끝난 후 부부들 태운 승용차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식장 앞에서 이들을 구경하였다.¹²

아홉 번째 상이군경 합동결혼식이 열렸던 날은 1954년 4월 24일이다. 주례는 여덟 번째와 같이 손 국방부 장관이 맡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운

10 『경향신문』 1952. 9. 8.

11 『경향신문』 1953. 11. 1; 『자유신문』 1953. 11. 2.

12 『대한뉴스』 제29호, 1954. 1. 4.

공로를 치하하고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감사품을 증정한 후 악수를 나누었다.¹³ <사진2>처럼 결혼식이 끝나고 남산에 올라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¹⁴ 상이군경 합동결혼식은 부산, 수원, 인천, 광주, 전주, 대구, 양양 등 각 지방에서도 열렸다.¹⁵

이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공간과 물품은 정부 각 부처와 관변단체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1952년 2월 28일 국방부 병무국장실에서 열린 회의에 백홍석 병무국장, 각 도 병사구사령부 원호과장, 각 시도 원호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군인 결혼 문제를 상정하고 토의한 결과, 이후 상이군인 결혼 시에는 식장과 물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예식장비는 대한부인회, 청첩장은 상이군인회장 국방부 장관 대한군경원호회장 대한여자청년단장, 차량은 내무부와 교통부, 꽃다발은 여자청년단, 사회부는 구호물자(구호미 또는 광목), 국방부 장관은 은수저 2조, 사주에 보내는 납례와 예물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서울 종로구에는 대한상이용사회 서울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상이용사를 위한 무료 예식장인 ‘희망예식장’도 생겼다.¹⁶

1950년대 합동결혼식의 주인공 중에는 ‘일반’ 상이군경이 아닌 ‘상이반공애국청년’이 있었다. 1957년 2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예식부에서 17명의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이들은 1953년 6월 18일에 반공포로로 석방된 후 국군에 입대했다가 부상을 입은 북한 출신 청년들이다. 결혼식에는 정희섭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 장관과 이상룡 내무부 차관, 고재봉 서울시장이

13 『동아일보』 1954. 4. 17; 『대한뉴스』 제39호, 1954. 5. 31.

14 『대한뉴스』 제152호, 1958. 2. 19.

15 『동아일보』 1953. 4. 5; 『대한뉴스』 제97호, 1956. 11. 11; 『경향신문』 1953. 7. 19; 『동아일보』 1954. 12. 2; 『경향신문』 1953. 8. 8; 『동아일보』 1953. 12. 7; 『경향신문』 1955. 11. 30; 『경향신문』 1954. 12. 11; 『동아일보』 1954. 12. 18; 『경향신문』 1955. 10. 30; 『경향신문』 1955. 12. 27.

16 『경향신문』 1952. 3. 6; 『경향신문』 1954. 3. 12.

참석하였고, 하객들도 가득 찼다.¹⁷

또 다른 합동결혼의 주인공으로 출소자들이 있었다. 사법보호위원회¹⁸에서 형을 마치고 출감하는 남녀에게 결혼을 알선해 주었다. 『대한뉴스』에서는 ‘갱생에의 출발’이라는 제하에 보도하였다. ((사진3)) 진주사법보호회에서는 1950년대에 30명에게 합동결혼을 주선하였고, 상무이사가 부부에게 전셋집을 얻어주기도 했다.¹⁹



〈사진3〉 1954년 출소자 결혼식
(출전: 『대한뉴스』 제37호, 1954. 4. 4)

1950년대의 합동결혼식은 ‘난민’을 대상으로도 열렸다. 1958년 11월 23일 시공관에서 열린 이날의 결혼식에는 이기봉 민의원 의장이 주례를 맡아 33쌍이 부부가 되었다. 한희석 민의원 부의장과 김일환 내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은 오상순이 축시를 낭독하였다. 이 결혼식은 시내 각 대학교수들이 주도하는 ‘난민합동결혼식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신랑신부는 전쟁에 피해를 입거나 수재를 당한 사람들과 3명의 상이군인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한강 백사장 동부이촌동에 살던 난민들로 약혼을 해놓고 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33개의 화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 및 개인기업체가 선물을

17 『조선일보』 1957. 2. 17 · 1957. 2. 24; 『대한뉴스』 제104호, 1957. 2. 28.

18 1913년 7월 면수자의 보호목적으로 재단법인 보호회를 설립하였으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동태 감시를 위한 암시적인 기구였고, 해방 후 형여자(刑餘者)의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법보호회로 개칭되었다. 1961년 9월 30일 법률 제730호에 의거 갱생보호회로 다시 설립되었다. 문선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전망』,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사회사업』 3, 1968, 161~186쪽.

19 『대한뉴스』 제37호, 1954. 4. 4; 『동아일보』 1961. 11. 2.



〈사진4〉 1958년 11월 23일 난민합동결혼식 후 피로연(출전 : 국가기록원 기록물철, 『난민합동결혼식(CET0021982)』)

보내왔고, 〈사진4〉가 보여주듯 식이 끝난 후 내무부장관이 후원(後園)에서 합동피로연을 열었다.²⁰

1950년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합동결혼은 상이군경, 반공포로 출신 상이군인, 형을 마친 출소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찬란’하게 장식된 곳에서 정부 인사들이 주례나 축사를 하는 등 ‘장

엄’하게 열렸으며 만원에 성황을 이루었다고 신문과 뉴스로 선전되었다. 전시에 시작된 상이군경의 결혼은 상세히 보도된 사례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합동결혼식의 주인공, 규모와 장소, 목적이 1950년대와는 달라졌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1950년대 이래로 성인이 된 고아나 부랑아 출신들이 많았고, 점차 신랑신부의 수가 늘어나 야외 운동장에서도 결혼식이 열렸다.²¹ 1962년 3월 27일 ‘귀순용사의 합동결혼식은 60쌍을 계획했다가 그 수가 70쌍으로 늘어났다(사진5)’. 국민회당에서 아세아반공연맹의 주최로 열린 결혼식에 박정희 의장의 10만환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3만환, 천우사 사장 6만환, ABC화장품 70상자 등 각계에서 축하금품을 보내왔다.²² 이후 대

20 『경향신문』 1958. 11. 4; 『경향신문』 1958. 11. 24; 『대한뉴스』 제190호, 1958.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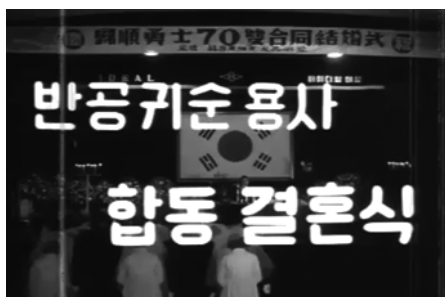
21 “한국부랑아보호지도회 경북지부에서 수성교 밑 천막에서 보호수용하고 있는 272명의 부랑아 및 전쟁고아들 가운데 당 지부의 알선으로 자활의 길을 갖게 된 성인층의 부랑아 5명을 선발하여 3일 하오 1시 구 국립극장에서 김종환씨 주례로 합동결혼식 거행되었다.” 『동아일보』 1960. 7. 13.

22 『동아일보』 1962. 3. 20; 『대한뉴스』 제358호, 1962. 3. 31.

규모 결혼식의 주인공은 고아나 부랑아 출신의 개척단과 근로재건대였다.

〈사진6〉은 1963년 충남 서산에서 115쌍이 결혼하는 장면이다. 신랑은 부랑아 출신의 ‘대한청소년개척단’ 단원이고 신부는 서울시립부녀보호소에 있던 여성들이다.²³ 이 개척단 단원의 합동결혼식은 이듬해에 서울에서도 열렸다.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결혼식은 신랑신부 225쌍으로 전보다 100쌍이 더 늘었다. 이 ‘매머드’급 결혼식의 주례는 윤치영 서울시장이 맡았다. 시장은 금반지를, 종로5가 일광여관주인인 김해원(64세)은 고무신 한 켤레씩을, 대한금융단에서 현금 20만 원을 전달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위 커힐을 관광하고 제공된 다과회에 참석한 후 서산으로 떠났다.²⁴

‘왕초’ 김춘삼은 여러 번 개척단의 합동결혼을 열며 유명세를 탔다. 때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처음 열었다고 하는 결혼식 장면을 보자. 대전에 세운 고아원 마당이다. 김춘삼 주례가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랑신부를 두 줄로 마주보고 서도록 ‘명령’했다. 신랑신부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사진5〉 ‘반공귀순용사’ 합동결혼식 보도 장면
(출전: 『대한뉴스』 제358호, 1962. 3. 31)



〈사진6〉 1963년 충남 서산 대한청소년개척단 합동결혼식
(출전: 국가기록원 기록물철, 『대한청소년개척단 125쌍
합동결혼식(CET0068620)』)

23 『대한뉴스』 제438호, 1963. 10. 12.

24 『경향신문』 1964.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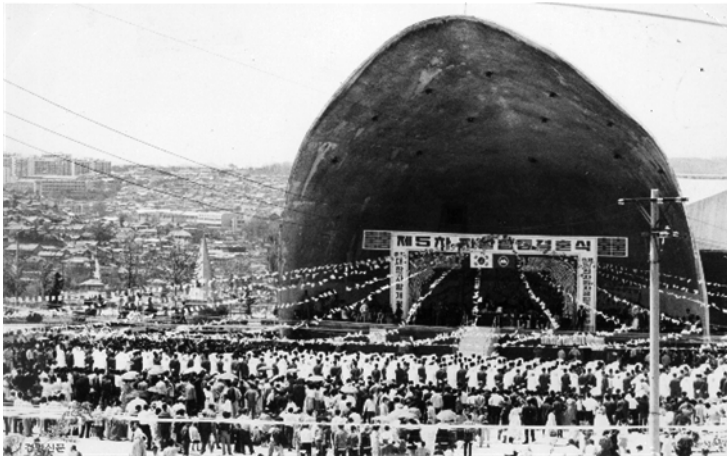
다. 신랑은 그대로 서 있고 마주보던 신부의 위치를 바꾸게 한다. 10보씩 앞으로 오게 하여 서로 손을 잡고 수건을 풀게 한다. 수건을 푸는 순간, 신랑신부의 희비가 엇갈렸다.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부부가 되는 순간이다. 결혼식이 끝나면 모두 목욕탕으로 가고, 이발도 한다. 그리고 대전 시내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는 것이다. 목욕과 이발비는 대전시장이 주선을 해주어서 무료였다. 김춘삼은 시내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그들의 신혼 여행이었다고 회고하였다.²⁵

〈사진7〉은 1970년 5월 4일에 서울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50쌍, 500명의 합동결혼식이다. 그 주인공 신랑들은 ‘대한자활개척단’ 단원들이었다. 이 개척단은 김춘삼이 조직한 것이다. 개척단 창립 5주년 기념식과 함께 다섯 번째로 열린 이 합동결혼식의 주례도 윤치영 당시 공화당 의장서리가 맡았고, 명예주례를 김제원 경향신문사 사장이 맡았다. 결혼식에 참여한 동료 개척단원이 1만여 명, 각계의 축하객이 5천여 명이라고 보도되었다. 식을 마치며 퇴장할 때는 300마리의 비둘기를 날렸고, 식이 끝난 후 8대의 버스에 나눠 북악산 스카이웨이 등을 ‘하니문’ 관광으로 다녔다. 경복궁 경희루 옆에서 피로연도 가졌다.²⁶

대규모 합동결혼식의 정점은 1971년 5월의 1,071쌍의 제16차 자활합동결혼식이었다. 대한자활개척단이 통일 자활개척단으로 개칭한 뒤 이 결혼식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정에서 열었다. 오경인 전 서울시 교육감의 주례로 신랑신부 3,142명이 입장하는 데만 40분이 걸려 1시간 반 동안 식이 진행되었다.²⁷ 결혼식을 주관한 김춘삼은 결혼식장이 있던

25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 3, 열림원, 1992, 108~109쪽.

26 『동아일보』 1970. 5. 4; 『경향신문』 1970. 5. 4.



〈사진7〉 1970년 자활합동결혼식(출전 : 『경향신문』 1970. 5. 7(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마포 일대가 수천 명의 구경꾼으로 마비가 될 정도였고 식이 끝나자 신랑들이 가졌던 “깡통을 밟는 소리로 일대 수라장을 이루”었다고 하였다.²⁸

1950~60년대의 합동결혼은 반공포로를 포함한 상이군인, 출소자, 난민, 고아나 부랑아와 이들 출신의 개척단, ‘귀순용사’들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주체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950년대에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던 중요한 대상이 상이군인이었고, 1960년대에 개척단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결혼식을 열었다. 보도되는 내용에서처럼 이들의 합동결혼은 결혼식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주관하는 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은 문제를 일으키는 상이군인, 일으켰던 재소자와 반공포로,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고아와 부랑아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를 통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각각 가지

27 『경향신문』 1971. 5. 24.

28 김춘삼, 앞의 책, 114·120쪽.

고 있던 사회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글에서 주인공이라 표현했지만, 합동결혼식의 신랑신부는 주최 측의 목적에 의해 꾸며지고 만들어지는 대상이었다. 정부와 민간이 특정한 대상을 결혼하게 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점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관통하고 있었다. 시기가 달라지며 그 목적과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는가에 달려있었다.

3. 합동결혼 추진과 사회의 ‘정상화’ 시도

1) 한국전쟁 전후 상이군인 원호와 결혼

전쟁 전후 시기의 상이군인²⁹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갈고리 손’을 휘두르며 폭력과 구걸, 강매를 일삼는 무서운 집단으로 여겨졌다. 1951~52년 사이, 끝나지 않은 전쟁 앞에 상이군인이 일으키는 폭력 사건이 기록된 것만도 수백 건이었고, 그 정점에는 1952년 9월의 칠곡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공산당이 좋아할 만한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하였고, 상이군인들은 사건 뒤 4·19 이전까지 정부를 상대로

29 상이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집단적인 요구를 할 수 없었다.³⁰ 다친 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이군인, 이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황이 맞물려 있는 이때에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형성하고, 원호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였다.

상이군인은 “멸공전선에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행복을 위하여 용전분투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원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³¹ 『상이군경을 원호하자』는 다음의 사설은 칠곡사건 당시에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고, 제안하는 원호 대책으로 결혼이 비중 있게 언급되었다.

전도가 만리 같은 청년들이 일선에서 자기의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고 싸우는 것은 청년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요 남녀노유와 더불어 전 민족을 위하여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전투의 결과도 곧 전 민족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전쟁으로 인하여 받은 타격도 전 민족이 공동으로 평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청년이 존귀한 그들의 생명은 조국의 장래와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받치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영령이 되었고 역시 많은 청년들이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자유를 조해당하여 불편한 몸이 되고 말았다. 이 귀중한 대가로 우리는 국토를 방위하고 자유로운 생활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응당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청년들의 고통과 불편은 우리 전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現下 우리의 주위환경을 볼 때 벌써 적지

30 ‘왜관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100여 명의 상이군인들이 무력으로 경찰서를 점거했다가 구속되고, 부산 지역의 상이군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사건이다.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33, 2011, 299~302쪽.

31 『동아일보』 1952. 3. 5.

많은 수의 상이군인이 제대되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나왔다. (...)

전 국민이 인식을 다시하고 당국이 완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젊은 여성들이 자진하여 상이군인과 결혼하여 불편을 자기 몸으로써 도와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결의를 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을 금치 못하게 하거니와 전 국민이 이들 젊은 여성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들을 자기의 자식 자기의 형제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각자가 심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갈 곳이 없다고 고아가 아니요 직업이 없다고 실업자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한 그들에게 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건전한 사회인 것이다. 그들이 불편한 몸이 된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닐진대 전 국민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무슨 특전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사회에서 극복하여주어 전 국민과 함께 같은 조건하에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청년들은 하등의 염려 없이 멸공전투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군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다수의 ‘우리’가 국토방위와 자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들의 괴로움과 불편함을 ‘전 민족’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호의 내용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인식과 당국의 대책은 바로, 자진해서 상이군인과 결혼하는 여성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자식이자 형제로 생각하고, 책임진다는 것이다.

자청해서 결혼하여 상이군인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여성은 ‘가룩한 순정

여성'으로 '찬사를 받았'고 '여성들의 좋은 교훈으로 칭찬이 자자했다'고 전해졌다. 실명한 군인과 결혼하는 여성은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다가 병신이 되어 돌아온 이 나라의 젊은 용사들에게 사회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저는 세상 여자들이 모두들 미쳐서 따라다니는 '허영의 행복'보다도 커다란 정의와 인도정신을 위하는 마음의 행복을 택하기로 하였"다며 "앞으로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만은 지금 저의 가슴에는 행복의 기쁨만이 가득 차있다"고 자랑스레 말하였다.³²

사회와 국가는 상이군인이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³³ 결혼을 통하여 평범한 삶을 살길 바라지만 여성 개개인의 의지와 순정에만 기대기에는 부족했다. '남처럼' 결혼을 할 수 없던 그들에게 정부가 택한 방법이 합동결혼이었다. 상이군인의 합동결혼은 1952년부터 국방부와 사회부가 나서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양 부처의 협력으로 중앙과 지방의 각 직업보도소에 결혼상담부를 설치하여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³⁴ 상이군인 합동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었다.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서 전 국민에게 상이군인이 여느 사람들처럼 '정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전장에 있던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결혼의 당사자에게는 주례와 성혼선언 등의 의례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는 무게를 체감하게 했다.

전쟁 시기에 정부가 결혼식을 열기 위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지가

32 『경향신문』 1952. 2. 25; 『경향신문』 1952. 3. 6; 『동아일보』 1952. 3. 26.

33 『동아일보』 1952. 3. 5.

34 사회부·국방부, 『傷痍軍人援護概況』, 1953. 1. 10, 53쪽.

문제였다. 이에 국방부와 사회부뿐만 아니라 대한군경원호회, 대한상이군인회,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단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대한군경원호회는 1951년 7월 창설된 사단법인이자 정부 협력단체였다. 1953년 초에 ‘원호·인보상조 정신에 입각한 상호원조’ 등을 장려하여 군경원호고등기술 학교·직업보도소·광명원·모자원 및 전국에 27개소의 수산장 등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방조직을 완성하였다.³⁵ 실제로 합동결혼의 실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이 대한군경원호회였다. 상이군인을 상대로 결혼보도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이군경 결혼상담 실시요강’에 따라 결혼을 알선하였다. 합동결혼식은 단체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1956년 국정감사자료에서 1,880쌍의 합동결혼식을 치렀다고 보고되었다.³⁶

대한상이군인회는 1951년 5월 부산에서 창립한 단체이다. 이곳 관계자가 후에 애국참전동지연맹을 주도하였고, 이 단체는 1956년에 상이용사회로 개편되며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³⁷ 1953년 현재, 4만5천여 명의 상이군인이 회원으로 등록한 ‘유일의’ 친목·단결·교양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기관지를 발행하고 회원교양 등의 사업을 했던 단체이다. ‘무의무탁’한 회원을 위하여 합숙시설을 하고 전국적으로 약 1,200명을 수용하기도 했다.³⁸

대한부인회는 1946년의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단이 1948년 정부 수립 전

35 사회부·국방부, 『傷痍軍人援護概況』, 1953. 1. 10, 39쪽.

36 1956년 대한군경원호회의 사업내용 및 업적은 다음과 같다. 保健社會部, 『國政監査資料』, 1956, 72~73쪽.

① 국빈자에 대한 각종생계부조금 지급 ② 합동결혼식의 거행 1,880쌍 ③ 일선군경의 위문 ④ 군경원호사상계발행사 ⑤ 실명용사의 수용기관인 광명원 운영 ⑥ 직업보도기관인 고등기술학교 운영 ⑦ 피원호단체의 조성

37 후지이 다케시, 『돌아온 ‘국민’—제대군인들의 전후』,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1950년대, 반공 동원 감시의 시대』, 선인, 2007, 363~369쪽.

38 사회부·국방부, 『傷痍軍人援護概況』, 1953. 1. 10, 39쪽.

에 한국애국부인회와 통합하여 대한애국부인회로 창설된 것이 1949년 2월 24일 개칭한 단체이다. 창립 당시 프란체스카가 총재를 맡았고, 조신성, 황애덕이 부총재를, 회장은 박순천이 맡았다. 전쟁 기 각종 ‘총후활동’과 전후 ‘무의탁용사’의 모자결연을 추진하기도 한 여성단체이다.³⁹

국방부와 사회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도 결혼식을 위해 예비비의 일부를 내놓았다. 국회 사회보전위원장 김용우는 “이것(합동결혼식)은 군관민 거족적으로 축하”할 일이라고 하며 “우리 국회로써도 국가를 위하여 사우는 군경으로 불우한 불구자가 되어서 특히 일생에서 제일 즐거워야 할 결혼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축하의 뜻을 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비의 1할을 각출하자는 것에 대하여 국회는 동의했다.⁴⁰

이처럼 전쟁 시기에 정부와 각 단체, 국회가 결혼식 비용과 역할을 분담했다면, 전쟁이 끝난 뒤로는 국방부가 상이군인 합동결혼식을 위한 상설기관을 조직하였다. 군경원호사업계획에 결혼식 항목을 책정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각 도에 ‘상이용사합동결혼식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각 도의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 단위 준비위원회는 매년 봄, 가을 2회씩 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는 계획이었다. 1955년에 위원회는 96쌍의 결혼식을 이미 치렀고, 대전(71쌍), 대구(26쌍), 부산(27쌍), 전주(9쌍), 광주(17쌍)에서 결혼식을 예정하였다.⁴¹ 문제는 결혼식 비용이었다. 상시적으로 치르기로 한 합동결혼식의

39 보건사회부, 『부녀행정40년사』, 1987, 194쪽; 『동아일보』 1957. 3. 18; 『동아일보』 1957. 9. 22; 『동아일보』 1958. 8. 31.

40 「상이군경합동결혼식 축하금 각출의 건」, 『제2대 국회 제15회 제5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3. 4. 11.

41 『경향신문』 1955. 11. 23;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117쪽에서 1955년에 906쌍이 결혼했다고 기록한 것은 96쌍의 오타이다.

예물과 예식비를 국민들이 거출하는 군경원호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다.

정부가 기획한 정기적인 합동결혼식은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이군인 합동결혼식은 1957년 ‘상이반공애국청년’의 결혼식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었고, 보사부와 대한상이군경회 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상이군인의 합동결혼식은 원호정책의 하나로 전쟁 시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상이군인을 ‘정상’의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고, 가족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원호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2) 1960년대 개척단·근로대와 여성의 교화와 개척

한국에서 합동결혼식의 시작은 상이군인이 아니었다. 해방 후 처음 등장했던 합동결혼은 개척단 단원들이 그 주인공이었다.⁴² 1949년 9월 3일, “흑과 더불어 신생 민국에 이바지하는” 한국개척단 단원들 다섯 쌍의 결혼식이 향

42 해방 후 개척단을 통한 개간과 정착사업은 식민지기 만주에서의 경험에서 연속되었다. 사회부에서는 “만주 이북 등지에서 찾아든 이재민 2백여만 명 중에서 농업에 경험 있는 자를 위하여 이들에게 토지를 주어 농작물 생산에 이바지하도록 농가정착계획을 실천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1년부터 조선인의 만주 농업이민 계획을 수립하고 ‘만선농사회사’를 통해 15년간 이주시키기로 하였다. 일정한 토지를 5년 이상 경작할 경우 자작농으로 창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1936년 만선척식공사의 설립 후 조선인 만주 이주는 계속 증가하여 1945년까지 140여 만 명이 이주하였다. 1930년대에 만주의 농촌으로 간 조선인은 총독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매개로 조성한 ‘집단부락’과 동아권업주식회사가 설치하는 ‘안전농촌’에 집단 거주하였다. 일본은 1938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신부를 양성, 알선하여 만주 이민(개척) 남성과 결혼시키는 정책을 벌였다. 『경향신문』 1949. 5. 18; 1930년대 전반 조선인의 만주 농업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임성모,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우가키(宇垣) 총독의 구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역사연구』 29, 2009; 今川勳, 『現代結婚考』, 田畑書店, 1990, 89~93쪽.

린원 남산분원에서 “간소하고도 자못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기봉 서울시장이 주례를 맡았다. 이종현 농림부 장관은 팽이·삽·호미를 선물했고, 교회에서도 술과 광목 등의 축하선물을 보내왔다. 피로연은 “신랑신부의 피땀의 결정인 감자와 고구마의 성찬”이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반 내빈들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맛있게 먹는 것도 한낱 흥내 나는 혼례의 정서”였다. 이 결혼식 장면은 극장이나 회관을 꽃과 오색테이프로 장식했던 상이군인의 결혼식과는 매우 다른 풍경이다. 당시에 도 모범적이며 간소하다고 평가되었다. 이 결혼식의 비용은 개척단 단복을 새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 쌍에 2만 원씩 들었다.⁴³ 결혼을 추진했던 이유는 강릉에 있던 단원 중 결혼하지 않은 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였다.⁴⁴

합동결혼식이 개척단에서 시작되었으나 전쟁 기 상이군인이 주요한 대상으로 바뀌었고, 1장에서 보았듯 1960년대 다시 생겨난 여러 개척단에서 지속적이며 대규모로 열렸던 것이다. 한국개척단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었던 것과 여기서 단원들을 합동결혼 시켰다는 경험은 이후 1950년대 상이군인 등의 합동결혼과 1960년대의 개척단 창설 및 합동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해방 후 합동결혼식을 열었던 한국개척단은 1948년 12월 1일에 방수원(方洙源)⁴⁵이라는 인물이 설립한 구국농축개발대가 1949년 5월에 개칭한 단체

43 『자유신문』 1949. 9. 3; 『경향신문』 1949. 9. 5.

44 『경향신문』 1949. 5. 18; 『동아일보』 1949. 5. 18.

45 1904년 3월 21일 평안북도 경주 출생. 1930년 2월 5일 서울에 조선인야학 설립. 50명의 무산아동을 수용하고 무보수로 봉사함. 1936년 7월 14일 도쿄의 유지들의 발기로 종교교육을 주로한 문자보급을 목적으로 한 순복음학교가 성황을 이룸. 1938년 향린원(香隣園) 설립. 1943년 방수원의 향린원 소년들을 주체로 한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 〈집없는 천사〉 개봉. 박소연, 『물신 신고 태평양을 건넌거나』, 한겨레, 1987, 31쪽; 소현숙, 『황국신민으로 부름 받은 ‘집 없는 천사』

이다. 이 개발대는 “긴박한 식량문제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농경지가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경지의 조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는 이유에서 설립되었다. “무직자 전재동포들로 조직한다”는 방침으로 설립되었는데, 주로 북한 피난민을 지도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개발대는 설립 당시에 100세대를 강원도에 보냈다. 각지의 산림과 임야를 개간하여 식량문제에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조직의 임원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명예총재를 맡고 사회부 장관(전진한) 외 12명의 고문,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사장 및 이사, 감사와 총재를 두고 방수원이 대장을 맡았다.⁴⁶ 또한 구국농축개발대는 방수원이 1938년에 설립한 고아원인 향린원에서 조직된 것이었다. 방수원은 일본에서 노동운동과 도덕재무장(MRA) 운동의 회원으로 일하며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1937년에 귀국한 후 향린원을 세웠다고 전해진다.⁴⁷ 한국전쟁 발발 후 방수원은 향린원의 고아 30명과 함께 경남 창원군 가덕도에서 500m 떨어진 무인도에 피난하였다.⁴⁸

들’-역사 사료로서의 영화 <집 없는 천사>」, 『역사비평』 82, 2008 참조.

46 『동아일보』 1948. 12. 1; 『경향신문』 1948. 12. 1; 『조선일보』 1948. 12. 2; 『동아일보』 1959. 10. 11; 『조선일보』 1948. 12. 10.

47 박소연, 앞의 책, 31·33쪽.

48 1954년 11월에 미국감리교선교부와 주한UN군 후방기지 사령부의 지원으로 국내 최대 고아원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군에서 4만 5천 달러와 목재, 시멘트, 석회를 지원하여 건평 50평에 12동의 건물이 지어졌다. 이 섬의 아동 수도 1951년 8월에 100여 명에서 1955년에는 278명으로 늘었고 피난 후 ‘진우도(眞友島)’라는 이름도 붙이게 되었다. 방수원은 섬을 하나의 자치시로 운영하였는데, 6~18세의 아동이 시장, 경찰, 법관을 맡고 독자적인 화폐와 복권을 발행하며 국민학교를 두었다. 섬에서의 유인 생활은 ‘아동민주시’라고 불리며 1959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사라호 태풍으로 시설이 파괴되고 철수하여 현재 무인도이다. 고아 시설은 ‘진우원’으로 김해시 진영읍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 있던 향린원은 1953년 7월에 안병무, 홍창의 등에 의해 인수되었고, 생활공동체를 창립정신이자 운영원리로 했던 향린교회로 그 이름을 이어갔다. 『동아일보』 1955. 2. 22; 『경향신문』 1955. 8. 15; 『한국지

반관반민단체였던 한국개척단이 1950년대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단편적인 사례로만 파악된다. 그 첫 번째는 1956년 포항에 사는 어느 시민이 개척단과 단속 당국에 항의를 한 사건이다. 개척단에서 발간하는 잡지 『개척』을 버스에서 강매하여 승객들의 반감이 크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개척』은 1959년까지 156권이 발간되었는데, 신문보다 지면이 적어도 가격이 비싸서 잘 팔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두 번째는 지방간부 6명이 이사장과 중앙간부를 상대로 배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중부 서에 고소를 제기한 일이다. 개척단의 자산을 민의원 선거비용으로 횡령하였고, 보사부 장관의 승인 없이 단의 부동산과 삼각산 유원지를 매각하여 횡령하고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다.⁴⁹ 두 사례로 볼 때 한국개척단은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재산도 상당량 지녔던 것을 알 수 있다. 간부들은 정치적으로 단의 조직을 활용하고 있었고, 단원들은 고아·부랑아·깡패 출신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설립될 때의 목적인 개간이 행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합동결혼의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전술한 것과 같이 1950년대의 합동결혼은 상이군인이 주 대상이었고, 개척단은 4·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50년대의 개간은 전시에 정부와 한국민사처(KCAC)가 합동으로 기획하여 민간(개인)이 추진하는 것까지 확대된 ‘난민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은 세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척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1960년대 합동결혼은 민정식이 단장을 맡은 ‘대한청소년개척단’과 김춘삼

명유래집 경상편]; 피난 과정과 진우도 운영 및 생활은 박소연, 앞의 책 참조; 현재의 진우원에 대해서는 진우원 해피로그(happylog.naver.com/jinwoo.do); 진후 향린원에 대해서는 『매일경제』 1983. 6. 15; 『한겨레』 1992. 12. 9; 향린교회 누리집 교회안내(http://www.hyanglin.org).

49 『동아일보』 1956. 11. 28; 『동아일보』 1959. 10. 11.

이 설립한 ‘대한자활개척단’, 서울시와 정부가 후원해서 설립한 ‘근로재건대’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합동결혼은 그 목적이 분명했다. ‘일소’해야 할 사회문제였던 부랑아, 깡패 등의 남성들과 구호와 교화가 필요하다는 과거 ‘윤락’ 여성들을 서로 결합시켜 가족을 만듦으로써 개간이나 간척, 도시 정화 등 생산에 투입하고, 통제 가능한 공간에 배치하여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혼식이 열릴 때마다 여러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되었고, 개척단과 과거 성매매 여성의 합동결혼식은 신랑신부 모두 “과거의 그늘진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되었다. “가족을 잃고 밝은 사회를 등진 의지할 곳 없는 불량 청년들과 윤락의 함정에서 헤매던 불우한 여성”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말하는 이들의 합동결혼이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어느 주례에서 “뒤통하고 진취성 있는 시민으로 새 서울 건설에 참여, 새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였다.⁵⁰

민간 개척단이 주관하고 정부가 후원 및 홍보를 담당하는 이 합동결혼은 1950년대에 정부와 관변단체가 상이군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추진 주체가 훨씬 다양해졌다. 또한 결혼을 개척과 그 후의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결혼 자체가 지니는 효과나 의미보다 이후에 개간과 간척에서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지가 중요했다.

대한청소년개척단은 1961년 5·16쿠데타 후 시설이나 거리에 있던 부랑아를 모아 조직하여 간척에 동원했던 단체였다. 충남 서산에서 간척을 하게 된 단원들은 부녀보호소에 있던 여성들과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첫 결혼식에는 ‘홍등가 출신’ 여성이 서울에서 57명, 충남에서 43명이 보내졌다. 여기에 25명은 서울 시립부녀보호소에서 모집하여 선발했다. 지원자가 100명이

50 『경향신문』 1967. 6. 3.

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선발된 여성들은 서울시장을 예방한 후 서산으로 떠나 결혼식을 올렸다(사진6 참조).⁵¹ 두 번째 결혼식은 서울에서 열렸다. 이 개척단의 단원이었던 송철영(가명)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던 주인공이었다.⁵² 그는 서산에서 간척을 하던 중 결혼식을 하러 가는 과정과 당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25쌍은 서울 위커힐에서 했어. 그것도 옛날에 윤치영 서울시장, 그 사람 주례하에 위커힐에서 했어. 그게 즉 말하자면 전시효과로, 순전히. 버스가 말야, 서산 역사상 그렇게 많이 들어오긴 처음이여. 225쌍을 싣고 갈려니께. 도로가 있나? 우리가 그거 버스 오기 전에 도로 내느라고 얼마나 혼났는 줄 알어? 난 그때 총각이여. 그래갖고. 마음이 있는 놈이고, 없는 놈이고 이렇게 짝지어놓고 그 놈하고 해야 되니께.

단원들을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 많은 버스가 서산에 들어왔고, 버스가 다니는 길을 단원들이 직접 내느라 고생했다는 경험을 들을 수 있다. 그는 결혼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전시효과’였다고 표현했다. 단원들은 마음이 있든, 없든 합동결혼에서 짝지어진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개척단과 여성들은 인신, 경제 등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된 노동으로 간척을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들

51 『동아일보』 1963. 3. 13; 『동아일보』 1963. 4. 4; 『경향신문』 1963. 7. 22; 『대한뉴스』 제438호, 1963. 10. 12.

52 송철영은 1941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고아가 되었고 부산에서 ‘부랑’ 생활을 하다가 1961년 11월에 전남 장흥에 강제 이송되어 ‘대한청소년개척단’이 되었다. 1962년 2월에 충남 서산에서도 개척단이 조직되면서 옮겨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합동결혼식을 치렀다. 필자가 그를 만난 것은 2012년 7월 9일, 15일이었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사업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은 가족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⁵³

그러나 2회의 결혼식이 있었던 1964년 말, 법무부가 제16회 인권선언일을 맞아 표창할 때 단장 민정식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65년, 어머니날을 맞아 민정식의 부인 김태남은 “부랑 청소년 1천 7백여 명을 개척단으로 이끌어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으며 서울의 윤락 여성을 선도, 350여 명의 개척단원과 합동결혼식을 시켰다”는 근거로 대한어머니회의 모범어머니표창을 받았다.⁵⁴ 당사자의 의사나 가족이 유지되는 가와는 무관하게 개척단을 만들고 이들 남성과 ‘윤락’ 여성을 결합시켰다는 점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추앙받는 업적이 되고 있었다.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김춘삼이 설립한 개척단에서 열었던 합동결혼식은 그 규모가 상당했다. 김춘삼은 해방 후 부산의 서리꾼 두목에게 날치기한 돈을 가지고 전국 10여 곳에 ‘합심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한 후, 1950년대에 ‘거지왕’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⁵⁵ 그는 1955년에 300명의 거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지들의 총책임자, 이른바 ‘거지왕’으로 선출되었다. 국립극장에서 거지들의 총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장 이기붕, 치안국장 유충열 등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 거지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一. 거지들 단결하자! 一. 자활을 개척하자! 一. 가정을 가져보자!

이러한 거지들 간부의 생각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개척단이 형성되고, 합

53 김아람, 앞의 글, 358쪽.

54 『경향신문』 1964. 12. 8; 『동아일보』 1965. 5. 6.

55 1925년 평남 덕천 출생. 2006년 8월 사망. 1960년에 중부시장 일대의 강패두목으로 수배되었던 김춘삼과 동명이인이다. 거지왕 김춘삼은 이때 부산 합심원 원장을 맡고 있었다. 『동아일보』 1960. 7. 3.

동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춘삼이 대대적인 합동결혼을 시켰던 ‘대한자활개척단’은 1961년 5월에 설립한 ‘한국합심자활개척단’을 1965년 5월에 보사부에 정식 등록한 것이었다. 이 개척단의 회장과 부회장은 국회의원이었고 각각 최석림, 김영복이 맡았다. 단장, 관리국장, 단기대장, 제2국장, 총무부장, 조직부장, 단기부장, 사업부장, 비서실장, 문화부장, 개척부장 등 조직을 갖추었고 1966~67년 전국 각도에 지단을 개편해 갔다. 각 도의 지단 밑에는 각 구, 시, 군, 면단을 재조직하였다. 1968년 창단 3주년 기념식에는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도 참석하여 합동결혼식 주례를 자청하였다. 이들은 1965년 8월부터 전남 영광, 강원 고성, 충남 아산에서 개간과 간척을 진행하였다.⁵⁶

실질적으로 개척단을 운영하고 합동결혼식을 주관했던 김춘삼은 개척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집단이 1차적 조건이지만 “개척 사업이 결실을 얻으려면 필히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건 여자건 뜨거운 피가 끓는 인간으로 태어나온 이상 이성을 그리워하게 마련이고 또 끓어오르는 욕정을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척 사업’의 주체는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는 사업이 성공하고, 남자가 정착을 하기 위한 욕정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김춘삼은 합동결혼식이 계속 보도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내 이름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일하기가 무척 편해졌다”고 밝혔다.⁵⁷ 합동결혼식은 김춘삼 개인에게 고아원과 개척단 운영을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유명세만큼 그의 생활과 활동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한편, 1960년대에 개척단이 농촌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갯벌을 간척하는 작

56 華國亮, 『거지왕 김춘삼』, 삼아문화사, 1971, 103~104 · 234~235 · 239~241 · 244쪽.

57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 2, 열림원, 1991, 109 · 155쪽.

업을 했다면, 도시에서는 농민주이들을 ‘근로재건대’로 조직하여 폐품을 수집하여 팔게 하고, 합동결혼을 시켰다. 서울시 경찰국은 1962년에 농민주이 집단 합숙소를 세우기로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① 합숙소에 집단수용하여 왕초를 제거하며 ② 수입을 늘리고 자취와 복장통일, 호적정리 및 건강진단 야학실시 ③ 직장알선, 합동결혼식과 공영주택 알선을 내세웠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시 당국과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후원 아래 근로재건대가 발대식을 가진 뒤 시비 1천8백만 원과 내무부 보조 1천2백만 원으로 시내 11개소, 52동의 천막시설인 합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⁵⁸ 근로재건대의 합동결혼은 1960년대 후반에 시립부녀보호소생들과 이루어졌다. 보도되었던 3회의 결혼식으로 111쌍이 맺어졌다. 결혼식은 서울시가 주관하였는데, 1966년에 결혼한 부부에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은 주택을 제공하였다. 서울 삼양동, 상계동에 있는 4평짜리 공영주택이었다.⁵⁹ 삼양동 주택은 수재민 구호용으로 지어졌고 상계동은 ‘적십자 주택촌’이라고도 불렸는데, 1966년 1월에 380가구의 판잣집이 소실되었던 남산 화재의 3,000여 명 이재민과 수재민이 집단으로 수용되었던 곳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국가는 상이군인, 거지와 부랑자를 시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겼다. 1950년대에 상이군인들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가족 내에서 문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한편, 1960년대에 개척단과 근로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였다.

58 『조선일보』 1962, 2, 24 · 5, 14.

59 『경향신문』 1966, 12, 17; 『매일경제』 1966, 12, 21; 『경향신문』 1966, 12, 22; 『경향신문』 1969, 10, 22 · 1970, 10, 19; 1971년에는 서울에서 근로재건대원, 자활개척단원들과 시립부녀보호소생, 시립행복원생 47쌍의 결혼식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제1부시장 주례로 치러졌다. 『경향신문』 1971, 11, 10.

4. 끝나지 않은 정착과 자활의 과제

합동결혼으로 만들어진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은 결혼과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족으로 만들어진 후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이 장은 앞서 결혼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남성과 여성 결혼당사자들의 삶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합동결혼을 하게 되었던 상이군인은 연금해당자 및 병역면제자였다.⁶⁰ 이것은 결혼 주인공이 연금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만큼 상이(傷痍)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었다는 점, 연금이나 병역면제가 없이는 결혼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이군인과 합동결혼을 했던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에도 이 글 1장에서처럼 결혼식장의 모습과 예식 과정, 주례나 축하 등 참석자와 구경꾼을 상세히 묘사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자진해서 결혼했던 여성들은 합동결혼하는 경우보다 그 수가 훨씬 적었지만 미담으로 칭송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의아하다. 자청하지도, 합동으로도 아닌 부모나 친척의 소개로 상이군인과 결혼한 여성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속아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집오고 나서야 다친 정도를 알았지만 친정아버지의 반대와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이유로 감내하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여성들 중에는 남편이 무서워서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고, 결혼 직후의 그 시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60 大韓民國傷痍軍警會, 『大韓民國傷痍軍警會四十年史』, 1991, 272쪽.

는 사람도 있었다.⁶¹ 상이군인 남성이 많은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어느 상이군인이 신문에 상담을 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결혼할텐데!⁶²

문) 나는 우완(右腕)을 잃어버린 상이군인입니다. 결혼하려고 푸로포즈해도 처녀진영에서는 낙제를 당합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답)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완을 받친 당신을 거절한 처녀들은 당신의 뜨거운 순정을 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기대리십시오. 틀림없이 당신이 바라는 훌륭한 처녀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유관자)

그렇다면 합동결혼을 했던 여성들은 정식 결혼식을 했다는 점에서 속았고 보기가 어렵고 이들이 누구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칭한 ‘순정’여성들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상이군인 결혼식 보도에서 ‘원편으로는 의족을 한 신부와 실명한 신랑이 각각 부축을 받고’라고 했던 것처럼⁶³ 신부도 장애가 있었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또 신부가 만일이 여성들이 개척단과 결혼했던 여성들처럼 다수의 ‘윤락 여성’⁶⁴이었거나 혹은 범죄자(재소자)였더라도 여성에 대해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멸공전선에서 분투한”, “명예로운” 상이군인과 이러한 여성들이 결

61 이임하, 앞의 책, 120~124쪽.

62 『경향신문』 1952. 3. 19.

63 본 논문의 2장 각주 9의 결혼식 장면 참조.

64 당시 결혼의 대상자 여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도 성매매 여성으로 확정하며 ‘윤락 여성’으로 호명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흔한다는 사실을 국가는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연금이라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상이군인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전쟁 기 수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고려되었을 법 하다.

합동결혼으로 맺어진 상이군인 가족이 어떻게 살았을 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⁶⁵ 그러나 상이군인 가족들의 자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귀농사업이 있었다. 사회부는 1952년에 ‘귀농사업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귀농부락을 설치하여 농토와 주택, 농구를 제공하고 5년간 현물세 등을 면세하며 5년 후 무상급여 된 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대상자가 교체 정착하게 하는 것이었다. 최초 계획으로 귀농자 1만 5천 명, 농토 7,500정보를 계획하였다. 1953년에는 상이군인 단체 중 ‘상이군인귀농대책위원회’가 있었고, 귀농재단 설립이 고려되었으며 귀농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부와 국방부의 대정부 건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⁶⁶ 실제로 경기도 김포와 낙동강 하류에 ‘농장’과 ‘새마을촌’이 조성되었다.⁶⁷

합동결혼한 상이군인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상이군인 가족이나 유가족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이군인의 취업이 쉽지 않았고,⁶⁸ 부인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정부는 상

65 정부는 ‘상이반공애국청년’ 부부를 남성들이 본래 집단생활을 했던 자생원에서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게 했다.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가족이 형성된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57. 2. 24.

66 『경향신문』 1952. 8. 29; 사회부·국방부, 『傷痍軍人援護概況』, 1953. 1. 10 참조.

67 1952년에 낙동강 새마을촌을 조성할 때 방수원이 개간하는 데 협조를 했었고, 마을이 형성된 후 부족한 식량을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토를 만든 곳으로서 매년 수천 석을 수확”했고, 1960년에 119세대 805명이 거주하였는데 태풍 칼렌으로 인해 농토가 휩쓸려 버렸다. 박소연, 앞의 책, 188·249쪽; 『조선일보』 1960. 8. 24.

68 이임하, 앞의 글, 2011, 314~316쪽.

이군인들도 난민들처럼 귀농정착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고, 5·16군사 정부는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제정하여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농장을 구입하거나 확장할 때,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대부하도록 법제화하였다.⁶⁹ 상이군인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뒤 정착하기까지 제도적 조치들은 그 방식을 규정할 뿐 실제로 살아가야 할 때 가족의 의지가 없이는 정착과 그에 따른 자활 모두 불가능했다.

다음으로 1960년대에 합동결혼의 당사자였던 개척단과 ‘윤락 여성’을 보자. 1955년 김춘삼이 ‘거지왕’에 등극하던 거지 총회에서는 ‘가정을 가져보자’고 결의하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1950~60년대에 거지, 부랑아들에게 가족과 가정이란 무엇이었을까. <표1>에서 보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수용아동 800여 명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랑아 중에는 가족이 없는 고아인 경우가 많지만 집을 나온 경우도 만만치 않았다. 김춘삼 역시 어머니가 재혼한 가정에 살다가 집을 나왔다.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은 부모의 이혼이 부랑 원인이었고, 계부와 계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부랑아가 되는 데에 가정과 가족 구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호소에 수용되기 이전의 부랑생활에 대해서도 재미있었다거나 그림다라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가족을 벗어나 조직에서 이들끼리의 ‘가족’을 만들며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일정한 만족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밝은 사회를 등진 의지할 곳 없는 불량 청년”이라고 했지만⁷⁰ 함께 숙식하고, 생계를 서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조직은, 또 다른 가족으로써 부재하거나 탈피하고 싶었던 혈연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6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650호, 1961. 7. 5 제정.

70 『대한뉴스』 제438호, 1963. 10. 12.

〈표1〉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부랑아 조사통계 (단위 : 명)

가정이 있으면서 부랑하는 경우 445	빈곤	207	학력 857	국민교 재학	548
	가정불화	112		중학 재학 중	61
	교우	126		국민교 졸업 후	88
고아인 경우 482	전제	95		중학교 졸업 후	60
	질병	109		기타	100
	재해	49	부랑 때 한 일 830	구두닭이	93
	부모 실종	91		걸식	228
	기타	138		넝마주이	26
부랑하게 된 원인 181	계부	98		잡상	55
	계모	83		기타	428
거주했던 지역 827	농촌	402	그리운 사람 847	아버지	144
	도시	425		어머니	309
부모 이혼이 원인 390	아버지와 동거	156		형제	216
	어머니와 동거	234		조부모	79
부모 교육 정도 825	무식	474		기타	99
	국교 졸업	167	좋아하는 것 842	학용품	154
	중학 졸업	142		장난감	80
	대학 졸업	42		돈	373
수용횟수 837	첫 번째	539	부랑생활 때의 회고 728	먹을 것	235
	두 번째	203		재미있었다	197
	세 번째	95		몹서리친다	267
부랑아의 방랑 이정표 837	40km 이하	338		그리울 때도 있다	264
	40km 이상	120			
	100km 이상	144			
	500km 이상	235			

출전 : 『경향신문』 1963. 7. 18.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바라보는 부랑 조직은 확대되지 않게 막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하는 문제 집단이었다. 때문에 1950년대나 쿠테타 이후 60년대가 마찬가지로 단속 후 조치를 취하였다. 그중 하나가 정착지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 개척단과 결혼한 여성들에 대해 “윤락의 함정에서 헤매던 불우한 여성들로서 자립 자활의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당시 시립부녀보

호소 사감으로 약 5백여 쌍 이상의 합동결혼을 주선했던 김영희는 1976년 ‘용신봉사상’을 타며 “윤락여성보호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뜻을 폈다”고 하였다.⁷¹ 그러나 개척단 생활에 대하여 단원이었던 송철영과 이진호(가명)⁷²는 ‘노예’였다고 일갈하였고, 이들과 부부가 되어 함께 개척단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여성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⁷³

창녀 잡아다가, 225쌍 합동결혼식을 시켰는데, 그때 사실은 대외적으로 다 누구하고 결혼해라 누구하고 결혼해라, 몇 번 만나보고 이렇게 해라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때는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뭘 누구 여자 생각이고 남자 생각이여. 여자는 무조건 시집가면은 도망갈 수 있느냐…… 재수 좋은 여자들은 간부들한테 시집가면 다문 밖에라도 잠깐이라도 휴가증 끊어서 나갔다가 올 수 있으니까 오고, 그런 식으로다가 결혼을 했던 말여. 하고 보니깐…… 다 그런 사람들이 한 1년도 못돼서 거의 없어진 거야. 다 나가버렸어. 다 홀애비 됐지.⁷⁴

서산에서 개척단원을 했던 송철영의 이야기로 정리해보면, 결혼 전에 약혼을 했다. 그러나 남성 단원들은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때였고, 여성들

71 『대한뉴스』 제438호, 1963. 10. 12; 용신봉사상은 최용신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1964년 제정한 상이다. 『매일경제』 1976. 10. 2.

72 이진호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7세에 집을 나와서 떠돌다가 1961년에 5·16쿠데타 후 전남 장흥으로 보내져 개척단이 되었다. 그는 개척단 내에서 반장 역할을 하였고 1967년에 단이 해산된 후 고향인 광주로 돌아왔다.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사업으로 2013년 6월 25, 26일에 걸쳐 필자가 면담하였다.

73 개척단의 구체적인 생활상에 대해서는 김아람, 앞의 글 참조.

74 송철영 구술, 2012년 7월 9일 면담.

은 부녀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 도망할 생각이 많았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개척단 생활을 포기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개척단 생활은 남성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다. 당시에 인터뷰를 한 여성은 “신용있는 여자라야 시장나들이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척단 내에서의 통제된 생활 속에서 집이 아니더라도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척단 내에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울타리 없는 가정생활에서 단 간부들에게 여인끼리의 고자질이 많아”졌다고 한다.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합동결혼 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서로 정해진 배우자감이 못마땅한 불만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남편감이 ‘지난날의 일’을 꼬집으며 구박을 해서 약혼 취소를 애원하는 일도 있었다. 신문기사에서도 “애당초 짝을 맺을 때 어느 정도의 교제기간과 서로의 결합조건을 생각지 않고 ‘벼락 약혼’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며 합동결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⁷⁵

합동결혼은 개척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결혼 후 개척단에 의한 서산 간척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년에 걸쳐 바다는 메워져서 농토가 되었고, 1968년에 개척단 단원들에게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분배는 점유권에 한정된 것으로서 송철영은 “서산에 와서 평생 억울한 문제”라고 하였다. 처음 개척단으로 와서 간척을 할 때 땅을 준다고 해서 버텼고, 점유한 땅의 등기문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산에 남은 단원과 이후에 점유권을 승계한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거듭하며 무상불하나 매각 및 장기분할 상황을 요구해왔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75 『조선일보』 1963. 7. 24.

2013년 현재 연리 2.1%의 20년 분납 조건 등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⁷⁶ 2012년에 현지에 남아있던 과거의 단원은 송영철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 결국 단원들은 강제 무임노동으로 간척을 했으나 그 토지는 정부로부터 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대한자활개척단은 결혼 후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파악되지 않지만, 김춘삼의 행적과 인식을 통해 그 삶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1968년 130쌍의 합동 결혼 때 김춘삼과 부단장 신동근이 찬조금으로 받은 결혼비용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찬조금을 받고서도 부부에게 한 쌍에 천 원씩 결혼식 참가비를 거뒀다는 혐의도 포함되었다. 또한 130쌍 중에서 50쌍은 조작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언론에서는 “한때는 거지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그들을 돌봐 거지왕초로서 존경을 받던 김(춘삼)도 돈을 알면서는 자가용을 타고 비서 5명을 거느린 의젓한 왕초가 되어 향락을 누렸다”고 했다. 김춘삼은 이에 대해 “부하를 잘못 둔 탓이지 나는 거지들을 위한 왕초에는 변함없다”고 항변했다.⁷⁷ 이 해에 자활개척단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지만 김춘삼은 무혐의로 풀려 나왔다가 1972년에 무용단을 해외 순회공연 시켜준다는 명목에 비용을 사취한 혐의로 또 구속되었다.⁷⁸ 이후에 김춘삼은 자서전

76 2010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12년에 기획재정부가 면적에 따라 상환기한을 달리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국민권익위의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은 개량비를 인정해 줄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시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충청투데이』 2013. 1. 5.

77 합동결혼식 기부금 횡령 이외에도 김춘삼의 ‘비행’은 여러 가지였다고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1968. 9. 14; 『경향신문』 1968. 9. 12; 『동아일보』 1968. 9. 12.

- 합동결혼식을 빙자해서 기부금 찬조금 조로 얻은 돈 중 259만 여원을 횡령
- 안양에 있는 73만평의 국유지를 개척단 정착지란 이름으로 불하받기 위해 교섭
- 봉천동 360가구의 주민들에게 장소배정, 시유지 입주 등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
- 혼혈아 민속예술제 공연을 빙자, 50만 원을 착복
- 그밖에 폭력 공갈 협박 등등

을 발간하고, 1994년에는 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를 설립했으며, 1997년 12월 이회창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보아 그때도 혐의를 벗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삶을 다룬 영화, 자전적 소설, 드라마가 나오며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고, 2006년 사망 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춘삼의 기획하에 행해졌던 합동결혼의 당사자 부부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거나 갈등이 생겨도 거부하거나 헤어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김춘삼은 자전적 소설에 합동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몽둥이 100대에다 금식을 10여일이상 해야 하는 ‘거지들의 이혼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했다고 적고 있다. 처벌을 받게 되면 “모두 죽었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감히 할 수가 없었다.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어쩔 수 없었다. 것처럼 무서운 처벌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조직을 정도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포주들에게 빚을 갚아준다는 각서를 쓰고 ‘창녀’를 빼돌렸다고 하며 합동결혼은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지켜세웠다.⁷⁹

대한자활개척단은 도시에 단원 다수가 있었고 최소행정단위까지 세포 조직으로 뻗어 있었던 것을 볼 때 서산의 대한청소년개척단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김춘삼의 합동결혼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개척단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였고 청소년개척단은 1960년대 전반까지 간척을 하기 위해 단원들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정착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합동결혼을 추진하였다.

78 華國亮, 앞의 책, 262쪽; 『조선일보』 1972. 3. 12; 『경향신문』 1972. 3. 13.

79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 3, 열림원, 1992, 108·117~119쪽.

5. 맺음말

1950년대의 합동결혼은 원호대책의 하나였다. 전쟁 시기에 국방부와 사회부, 대한군경원호회와 각 관변단체가 분담하고 국회에서도 비용을 부담하여 화려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다. 상이군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여성)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결혼으로 그들 또한 평범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합동결혼이 추진되었다. 전쟁 종결 후에는 정부가 연 2회의 상시적인 합동결혼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합동결혼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1950년대의 합동결혼은 남성 주체가 정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방안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여성은 그 상대로서의 역할을 맡는 지위였다. 합동결혼하는 여성들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가족의 삶에 대해서도 결혼 이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개척단·근로대와 부녀보호소 여성들 사이의 합동결혼이 대부분이었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지 않고 민정식, 김춘삼과 같은 인물이 단체를 조직하여 추진하였다. 이 시기 합동결혼은 남녀 모두 과거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부랑아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떠난 사람들로, 가정에서의 불화가 부랑 생활에 큰 계기로 작동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에서 '가족'으로 생활하였지만 국가와 사회는 근절해야 하는 문제 집단으로 여겼다.

합동결혼을 하게 되는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삶이 크게 달라진 존재들이었다. 국가는 이 주체들이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지 않

고, 자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족을 형성하는 ‘정상화’로 개인 주체가 가족 내에서 제약되기를 바라고, 만들어진 가족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기대하였다. 1950년대에 전쟁을 완수하고 그 후 ‘다친 몸’을 수습하여 평범하게 사는 과제, 1960년대에 농토를 확대하여 식량 생산을 증대해야하는 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의 몫이었다. 이 가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필요했고, 그 방법으로 1960년대 전반까지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것은 개간과 간척을 한 후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동결혼한 가족이 귀농하여 황무지를 개간, 간척하고 그 곳에서 영원히 정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1950~60년대 자활의 모범이자 합동결혼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목표였다.

주제어 : 한국전쟁, 상이군인, 고아, 부랑아, 거지, 방수원, 개간, 구술사

최초투고일 : 2015년 3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0일

Abstract

Family relief and self-support : Joint weddings and their protagonists

Kim A Ram

The joint weddings in the 1950s were relief measur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splendid and magnificent wedding ceremonies were held by means of cost sharing with government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furthermore, even the National Assembly bore the costs during the Korean War. Emphasizing the fact that disabled veterans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nation, people had to share the pains and help them live normal lives through marriage, and consequently joint weddings were promoted. After the Korean War ended,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 organization to carry out an usual joint wedding two times every year and tried to prepare funds to push joint weddings nationwide. As joint weddings in the 1950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help male subjects live normal lives, their counterparts (i.e., women) were often unknown, and no one was interested in their family lives after marriage.

In the 1960s, members of the exploitation corps and labor groups were married by means of joint weddings mostly to women in shelters, and persons such as Min, Jeong-sik and Kim, Chun-sam, who were not directly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composed organizations and carried out the events; the joint weddings during this period forced couples to abandon their past lives and start new ones. As the vagrants had no families or left them,

disharmony with family members largely affected them. Although they lived as “family members” in their organizations, the state and society regarded them as problematic groups having to be rooted out.

The subjects getting married were persons whose lives became far different than in the past due to war and poverty, which is something they shared in common. The state considered them to require families in order to support themselves rather than depend upon the state and society; furthermore, the state wished every subject to be constrained within the family by forming “normalized” families, and expected them to carry out their given roles faithfully via these families. Those were the shares of newly formed families to bear the tasks, living normal lives after completing the war in the 1950s and handling their “injured bodies”, and expanding farmlands in the 1960s in order to increase food production. As the minimum foundation for these families to live by themselves, the method which the government carried out actively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60s was to cultivate and reclaim wastelands before settling them in these lands. Returning to farming was the best goal to be achieved by families formed through joint weddings and was also an example of self-support in the 1950s-1960s.

Key words : The Korean War, disable veterans, The Orphans, ‘Children on the street’, begger, Su-won Bang, reclamation, Oral History

참고문헌

•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전쟁의 상처와 치유—전쟁 미망인과 상이군인의 전후 경험』, 2015.
-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 1~3, 열림원, 1992.
- 박소연, 『물신 신고 태평양을 건널거나』, 한겨레, 1987.
- 今川勳, 『現代結婚考』, 田畑書店, 1990.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George L. Mosse, *Fallen Soldiers :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 1990(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문학동네, 2015).
- 華國亮, 『거지왕 김춘삼』, 삼아문화사, 1971.

• 논문

-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129, 2011.
- 金嘯洙, 「婚姻에 대한 法意識의 實證의 高찰」, 『法學』 4-1·2, 1962.
- 李效再, 「서울市家族의 社會學的考察」, 『韓國文化研究院論叢』 1, 1959. 3.
- 문선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전망」,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사회사업』 3, 1968.
- 박정석, 「상이군인 및 유가족들의 한국전쟁 경험」, 『호남문화연구』 30, 2002.
- 소현숙, 「황국신민으로 부름 받은 ‘집 없는 천사들’—역사 사료로서의 영화 〈집 없는 천사〉」, 『역사비평』 82, 2008.
- 원미혜, 「‘성 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0.
- 이임하, 「상이군인들의 한국전쟁 기억」, 『사림』 27, 2007.
- _____,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33, 2011.
- 후지이 다케시, 「돌아온 ‘국민’—제대군인들의 전후」, 『죽업으로써 나라를 지키자—1950년대, 반공 동원 감시의 시대』, 선인, 2007.

임성모,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우가 키[宇垣] 총독의 구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역사연구』 29, 2009.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 박사논문, 2011.

박홍근,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넝마주이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 석사논문, 2014.

•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뉴스』, 『매일경제』, 『자유신문』, 『조선일보』, 『충청투데이』

사회부·국방부, 『傷痍軍人援護概況』, 1953. 1. 10.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대 국회 제15회 제51차, 1953. 4. 11.

국가기록원 기록물철, <난민합동결혼식(CET0021982)>, 1958.

국가기록원 기록물철, <대한청소년개척단 125쌍 합동결혼식(CET0068620)>, 1963.

大韓民國傷痍軍警會, 『大韓民國傷痍軍警會四十年史』, 1991.

保健社會部, 『國政監査資料』, 1956.

보건사회부, 『부녀행정40년사』, 1987.